

저소득층 아동 지원·가정 복지 도우미 운영 등 市의회 추진 조례안 마찰 잇따라

관련단체들 “아동복지법 위반, 지원 대상 등 모호” 반발

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지원 조례’들이 이해 관계에 있는 관련 단체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나종현 의원(민주·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광주보육시설연합회 등 이해 관계에 있는 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 조례’는 광주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프로그

램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빈곤 또는 결손아동들에게 보호·교육·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입법 취지다.

나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의 보호, 교육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82개 지역아동센터로 구성된 광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조례안에 반발하는 내용의 문건을 광주시의회에 제

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광주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문건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가 마치 저소득층 아동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비쳐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미등록 시설까지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된 ‘가정복지도우미 운영 조

례’도 광주보육시설연합회 등 보육단체가 집단 반발, 논란이 되고 있다.

양 의원은 ‘가정복지 도우미’는 이웃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노인들을 가정복지 도우미로 활용해 맞벌이 가정의 아이와 가사를 돌보는 제도로 맞벌이 가정의 저출산·육아 문제 해결과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보육시설연합회는 “지원 대상과 규모·방법 등이 모호하고, 아이돌보미·워킹맘 지원 사업 등과 중복돼 이중 지원 우려가 있다”며 “자칫 또 하나의 변형된 가정 지원 제도로 양산할 뿐이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돕구장’ 공개 토론회

광주시의회 이달 중순께

광주시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돌 양구장 건설과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돌 구장 건설 찬반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돌구장 찬성 측과 반대 측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돌구장이 추진됐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개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광주의 미래’ 위한 선택을



윤현석

사회 1부 기자

돌구장 논란으로 광주가 뜨겁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최근 (주)포스코건설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돌구장의 필요성과 논의 과정, 돌구장의 전제 조건은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논쟁도 서로 자기 주장만 반복하며 참여화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선 돌구장이나 관광·레저 중심의 신도시에 대해 ‘걸치레만 강조된 과부하 시설’이라거나 ‘건설업자에 의해 개발되는 아파트 지구’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듯 하다. 만일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영리목적만을 내세워 사업제안을 해온다면, 그것은 광주시가 거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돌구장과 관광·레저 중심의 신도시를, 광주 미래의 또 다른 성장축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광주는 내륙도시인데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유 등이 더해져 산업도시로 비약하지 못했다. 제조업 등 산업기반은 아직도 열악한 수준이며, 최근 들어서야 관광업 등 첨단산업이나 자동차나 가전 등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선진’하는 정도다.

하지만 지금은 무작정 제조업만을 붙잡고 있어야 할 시대가 아니다. 제조업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쇠퇴하고,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미래 산업구조 개편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관광이나 문화분야 서비스업에 대한 지역 산업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문화산업을 모든 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육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을 계기로 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광주는 전남과 아울러 무궁무진한 자원을 품고 있지만, 그동안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서비스로 연계하지 못했다. 또 황금이나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호텔이나 부대시설 등도 턱없이 모자랐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광주시는 이러한 기반 시설의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 정부에 매달리거나 또는 민간투자를 유도해낼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이다. 특히 민간투자를 유도해내는 과정에서 그간 광주시의 일처리가 다소 서툰 부분도 있었다.

그러한 서툰 부분을 사전에 잘 조정해낸다면, 투자 기업과 해당 도시에서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당수 선진도시들도 모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왔다.

돌구장과 관광·레저 중심 신도시에 이제 막 ‘도마 위에 오른 생선’이다. 이 생선에 손을 대기도 전에 밀어내다든지, 여기저기 무턱대고 칼을 들이대 흠집을 낸다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돌구장 건립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나왔고 대기업과의 논의과정도 비공개로 전개된 점 등은 아쉽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광주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판단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 /chadol@kwangju.co.kr

장흥서 한의학 드라마 ‘신의’ 제작

전남도 세트장 등 지원 MOU 체결

한방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특별 기획된 한의학 드라마 ‘신의(神醫)’가 장흥 한방특구 등을 무대로 제작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의학 드라마 ‘신의’ 제작을 위해 5일 오후 5시 전남도청에서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협력기관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장흥군 등이 드라마 제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 협약을 통해 협약 당사자들은 한방 산업 진흥을 위한 홍보 협력과 드라마 제작지원, 드라마와 연계한 전남지역 특산물 상품화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할 방침이다. 또 ‘신의’ 드라마 세트장은 장흥군 관산읍 옥당리에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 건립된다.

한의학 드라마 ‘신의’는 고려시대 젊은 의원이 고난과 역경을 의술로 극복, 신의가 된 과정을 그린 퓨전 사극 형태의 코믹 메디컬 판타지 장르다.

총 24부작으로 제작되는 이 드라마는 모래시계·태왕사신기·이산 등을 연출한 김중학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내년 2월 SBS 방송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 전형진 대표이사는 “드라마 ‘신의’는 한방의 가치를 높이고 콘텐츠 수출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은 “드라마 ‘신의’의 촬영을 현재 추진 중인 ‘사상의학 체험랜드’ 건물을 오픈 세트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함께 한의학 체험관광지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관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 기후변화·환경산업전’ 열린다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내외 기후변화·환경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신제품이 한자리에 선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코트라가 주관하는 ‘2009 국제 기후·환경산업전’이(2009 ICEF) 5일~7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환경산업기술관 ▲친환경건축 및 자재관 ▲친환경상품관 ▲녹색기술·정책관 ▲친환경수송관 등 각 주제별로 특별관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집트 등 7개국 25개업체(42부스)를 포함해 모두 132개 업체(310부스)가 참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빛고을 통일포럼’에서 정 전 장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

광주 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빛고을 통일포럼’ 강연서 주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는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사)통일준비네트워크(이사장 정대철)가 주관하고, 광주일보와 광주시, (주)금강기전 등의 후원으로 열린 ‘빛고을 통일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묘에 선 한반도-대화나 대결이냐’를 주제로 발표

한 정 전 장관은 “정부는 인과관계를 잘못 분석해 ‘비핵-개방-3000’ 정책 기조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 후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큰 후회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모양새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자진해서 전향적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의 북핵우선론, 남

북관계 후행론 등으로 사실상 남북관계를 방기했다”며 “이 결과로 경제면에서 북한을 사실상 중국에 넘겨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반도 평화회담이 평화는 가져오되 분단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운영되는 경우, 그 역사적 책임을 어찌 감당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전 장관의 주제발표 이후 이부영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전 국회의원), 임채완 전남대 교수, 박지경 광주일보 정치부장 등이 토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마시자! 알칼리 이온 시스템

물속 건강을 위한 알칼리수
피부 건강을 위한 산성수

물속 노폐물만 빼고 나기도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라면, 산성수나 알칼리수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속의 산성수나 알칼리수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속의 산성수나 알칼리수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거/세/일
695,000 원

2주입전
부품비행입 조합
광주시사 1644-3210

(주)중앙과학
(주)이오니아

산水土風

자연의 힘을 빌려주는 산水土風

건강을 위한 알칼리수
피부 건강을 위한 산성수

물속 노폐물만 빼고 나기도 건강과 미용을 위해서라면, 산성수나 알칼리수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속의 산성수나 알칼리수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속의 산성수나 알칼리수만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거/세/일
695,000 원

2주입전
부품비행입 조합
광주시사 1644-3210

(주)중앙과학
(주)이오니아